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언어 문제>에 대한 토론문

박용한(해군사관학교)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양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발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언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의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는 언어 문제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언어법 제정, 라디오와 TV에서의 사용 쿼터 조정, 교육 영역에서의 러시아어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른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탄압이 전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사용자들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된 것이어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을 통합하는 기능도 하지만, 특정 지배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분리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러시아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는 입장에서, 자국의 언어인 우크라이나어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인권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언어 정책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국어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수자의 언어 권리 보장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크라이나의 국내 정치에서 언어 정책의 문제는 매우 큰 긴장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쟁 종료 후에 우크라이나의 언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동슬라브어의 하위 그룹에 속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토론자로서 이 언어들이 의사소통의 가능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 관계에 있는지 궁금하며, 이런 두 언어의 유사성에 관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 별도의 한 장을 할애하여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당한 명분들을 쌓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 언어 정책은 러시아에게 하나의 전쟁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 사용자에 대한 탄압을 하나의 개전 명분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언어 문제는 정치, 군사, 영토, 에너지 등의 기타 문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